

4차 재난금 '노점상' 논란 자초... "지원대상 불분명한 예산 추계"

정부, 노점상 4만명 대상 50만원 지급키로

국회 예정처, 노점상 지원 관련 허점 지적

"지원대상 선정에 노점상 특성 고려 안 돼"

"노점상 사업자등록 통한 사업참여 불확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각지대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점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에 급급한 여당의 성화에 못이겨 정부가 무리하게 지원대상을 정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인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상공인 성장지원금 50만원(총

200억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점상 특성상 사업의 지원요건인 소득감소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2차·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에 등 떠밀려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노점상 대상인 "소득안정지원금 사업은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을 4만개로 예측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현황을 조사해 도

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관리대상 노점상 비율을 통계상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추정돼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국 전통신장 내 노점상 산출을 총남 기준으로 추정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전통신장 점포 수는 22만8384개인데 총남 전통신장 점포 수는 1만397개(4.6%)를 차지했다.

이 중 총남 전통신장 내 관리 가능한 노점수 802개를 전국 기준으로 확대 계산하면 약 1만7000개 산출된다.

이 밖에 전통신장 외 노점상은 서울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19.0%로 집계됐다. 여기서 서울 전통신장 외 관리 가능 노점수가 5303개소인 점을 고려해 전국 전통신장 내 관리 가능 노점수는 약 2만8000개라고 봤다.

즉 전통신장 내 노점상 1만7000명과 전통신장 외 노점상 2만8000명을 합쳐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을 총 4만5000명으로 추정했지만, 과하게 산정했을 수도 있으며 4만명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지자체별로 전통신장 내의 노점수 분포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중의 상이함이 반영

되지 못했고 추계과정에서 2018년 자료와 노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 수 등을 수치로 활용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다양한 운영 형태와 소득, 매출 감소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도 논란거리다.

보고서는 노점상의 사업자등록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동일한 5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을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주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원하지 않는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 역시 "현재까지 노점상 등록·허가제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해 부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점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최영찬(오른쪽 네 번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확대 노점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놓고 노점상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이 노출돼 기초생활수급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만8000여명으로 전년 설 연휴(1월 23~27일) 94만명보다 승객이 되레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데

노점상들은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만큼 선별지원이 아닌 전체 노점상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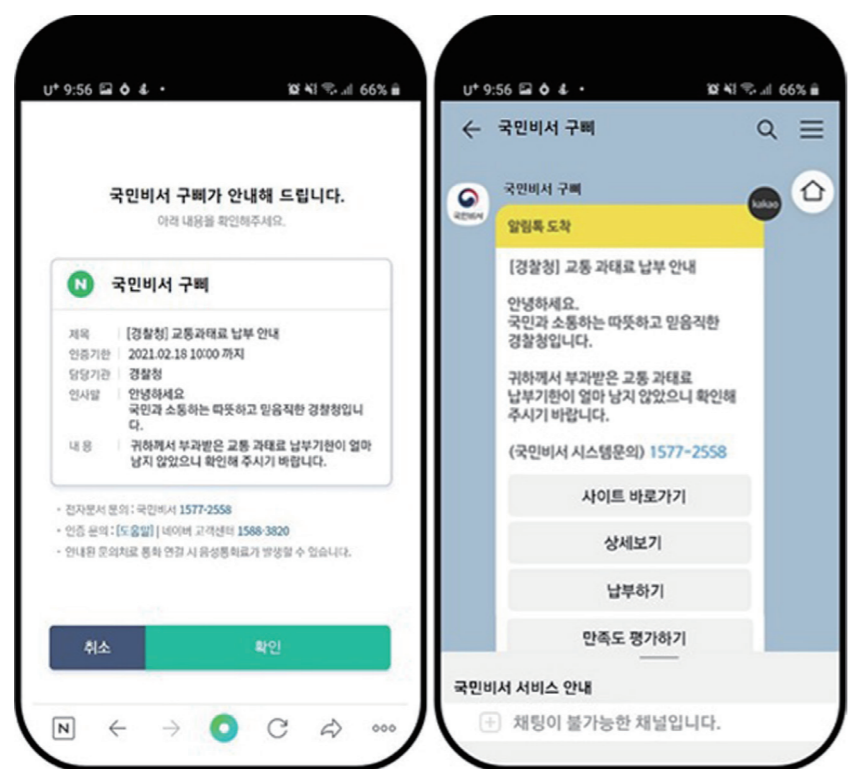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차별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매출이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내 접종 차례는? 카톡·네이버·토스 앱으로 알려준다

행안부·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 국민비서 업무협약

이달말 세금·과태료 안내 개시...하반기엔 접종 일시·장소 제공



이달 말부터 각종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날짜와 장소도 때때로 안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네이버, 카카오,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

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세금·과태료·벌칙금 납부기한, 국가장학금 신청 등 각종 행정 정

보를 때때로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홈페이지 가입과 공공 앱 설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국가 예방접종시스템과 연계해 접종 예약도 안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1·2회차 접종 일시와 장소를 본인 이 선택한 앱이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한다. 백신을 맞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나 의료기관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과 국민비서 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이달 말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전해질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비서 캐릭터의 이미지와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명칭은 국민비서의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자를 딴 국비를 발음하기 연계된 '구비'로 정했고, 전 세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세상에 사는 인공지능(AI) 토끼 로봇의 모습을 차용했다.

최이슬 기자

"고향길 자제" 안 먹혔나...지난달 공항이용객 50% 증가

국내선 설연휴 94만8천명...전년보다 8천명 늘어

지난달 국내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48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를 당부했지만 시민들의 협조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관광공사가 고시한 항공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김포와 제주, 인천, 김해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479만6571명이다. 전월 313만8757명과 비교해 52.8%가 증가한 수치다.

국내공항 이용객의 이 같은 증가는 지난달 설 연휴로 인해 이용객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국내선 승객은 94만8000여명으로 전년 설 연휴(1월 23~27일) 94만명보다 승객이 되레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공항 이용객을 살펴보면 제주공항이 174만280명(전월 대비 66.5%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포 157만4940명(51% ↑), 김해 66만3530명(52% ↑), 청주 17만414명(74% ↑)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절 연휴기간을 이용해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은 경우는 지난 추석 연휴에도 나타난 바 있다.

옛새 간의 항공연휴가 꺾던 지난해 10월 항공여객도 573만9856명으로 집계돼 전월 392만3569명보다 46%가 증가해 올해 2월과 비슷할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일명 옛새 간의 연휴로 '추캉스'(추석+바캉스)를 떠나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이용객의 증가 폭은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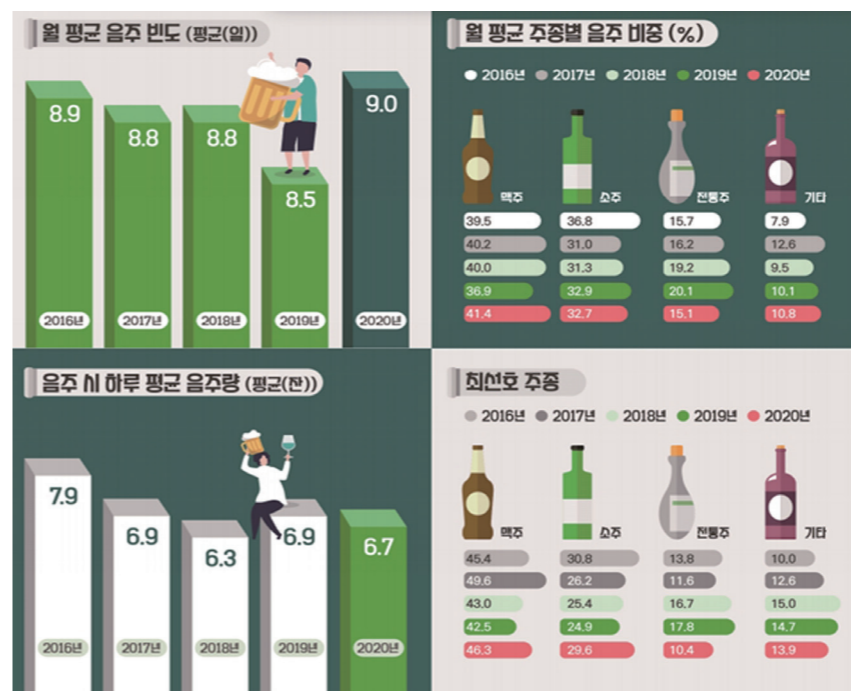
한편 국제선 항공기는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달 이용객이 16만5542명으로 전월 21만912명과 비교해 21.5% 감소했다.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술 더 조금씩, 자주 마신다

월평균 음주 9.0일...전년 대비 0.5일 ↑

하루 평균 음주량은 6.7잔으로 0.2잔 ↓



지난해 성인들은 술을 더 자주, 그러나 양은 적게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모임보다는 집에서 조금씩 즐기는 '홈(Home)술'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월

평균 음주 빈도는 9.0일로 2019년(8.5일)보다 0.5일 늘었다. 이는 2016년(8.9일), 2017년(8.8일), 2018년(8.8일) 등 직전 5개년 중 가장 높은 빈도다.

대신 음주 시 하루 평균 음주량은 6.7잔으로 2019년(6.9잔)에 비해 다소 줄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흡술

트렌드가 증가하고 여성층의 주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집에서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로 점점 더 변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 평균 주종별 소비 비중은 맥주(41.4%)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소주(32.7%), 전통주(15.1%), 수입와인(4.5%)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술로는 맥주(46.3%), 소주(29.3%), 전통주(10.4%), 수입와인(5.3%) 등이 뽑혔다.

작년 소비자들은 주류 트렌드로 '혼술'(74.9%), '홈술'(72.0%), '다양한 맥주'(64.9%) 등을 꼽았다.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혼술, 40대 여성은 홈술, 50대 남성은 다양한 맥주를 각각 트렌드로 지목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인 6개월 이내 전통주를 마신 적이 있는 이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소비자와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성이나 연령별 특징이 드러났다. 25~34세 여성들의 경우 친구의 집 등에서 마시는 일이 늘면서 음주량이 늘거나 비싼 술을 먹게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35~44세 남성들은 주로 혼술을 하거나 집에서 가볍게 음주한다고 답변했다.

오유나 기자

'메이플스토리' 0% 확률에 헛돈 쓴 유저들

넥슨,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로 문제점 드러나

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들을 기만해온 행위가 포착됐다.

넥슨은 지난 5일 '메이플스토리'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들을 공개했다. 이는 유저들이 제기하는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자마자 문제점이 드러났다.

10일 넥슨이 공개한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 잠재능력 옵션 '보보보'와 '방방방'은 예초에 실현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보보'와 '방방방'은 '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증가', '몬스터 방어율 무시'로만 3가지 잠재능력 옵션을 채운 것을 유저들이 줄여 부르는 말이다. 유저들은 실제 돈을 주고 '큐브'를 구매해 아이템에 특정 확률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잠재능력중복 제한이 설정돼 있던 것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저들은 '보보보', '방방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료 아이템 결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도 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지를 통해 "잠재능력 옵션은 세 개의 옵션 중 최

대 두 개까지의 옵션이 재설정된다"며 "일부 잠재능력 옵션(보보보, 방방방 등)이 동시에 여러 개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을 설정한 이유는 2011년 8월 레전드리 잠재능력이 처음 추가될 당시의 보스 사냥이나, 아이템 획득의 밸런스 기준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넥슨의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지난 9일 또 다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4월 중 고객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 기자